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 장 자 : 김능겸 2급 행정원(기획조정본부 학술팀장)
2. 출장기간 : 2007년 9월 7일 - 9월 17일(9박 10일)
3. 출장국가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4. 출장목적 : - 방문기관의 성격(기능), 조직 및 인사관리(인적구성, 평가제도), 행정 지원부서의 조직 및 인력, 기타사항 등 일반현황 파악
- 연구사업의 기획, 연구사업의 수행 및 연구성과관리, 연구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기타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 등 연구지원 실태파악
- 방문기관의 특징, 조직 활성화의 방법, 기타 수범사례 등 조직혁신 사례수집
5. 방문기관
 - 영국 캠브리지대학, 대영박물관 견학
 - 프랑스 파리 제2대학, 루브르박물관 견학
 - 유럽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UNICRI) 방문
 - 독일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원 방문
6. 중점 견문사항
 - 방문기관의 성격(기능), 조직 및 인사관리(인적구성, 평가제도), 행정 지원부서의 조직 및 인력, 기타사항 등 일반현황 파악
 - 연구사업의 기획, 연구사업의 수행 및 결과관리, 연구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기타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 등 연구지원 실태파악
 - 방문기관의 특징, 조직 활성화의 방법, 기타 수범사례 등 경영 및 조직혁신 사례수집

2007. 9.

작성자 : 김 능 겸 (서명)

유엔 지역간 범죄 및 사법 연구소(UNICRI)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1. 설립

유엔 지역간 범죄 및 사법 연구소(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 UNICRI)는 유엔 사회방위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 유엔의장을 보좌하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요청에 부응하여 1968년에 유엔 사회방위연구소(United Nations Social Defence Research Institute : UNSDRI)로서 설립되었다. 1989년 5월에 UN 경제사회 이사회는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 지역의 수요에 응하여 이 연구소의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엔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에 더욱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보조하기 위한 훈련과 현장활동(field activities)을 통한 연구 결과의 확대라는 점에서 연구소의 활동이 다양화되어 왔음도 지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UNSDRI를 UNICRI로 바꾸고 연구소의 관련 규정과 운용절차들을 갱신하는 정관이 채택되었다.

2. 목적과 기능

연구소의 목적은 - 정관의 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

연구, 훈련 및 현장 활동, 정보의 수집, 교환 및 전파를 통해 범죄예방 및 통제 분야에의 좀더 개선된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공헌하며, 사회경제적 변화 및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내에 위의 정책을 통합시키는 것과 인권의 보호에도 적절한 고려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의 기본적 기능들로서는,

- 새롭고 흔히 국제적인 형태의 현상에 특히 유의하여, 청소년 비행과 성인범죄를 포함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식 및 정보베이스를 구축한다.
-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인권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현상들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적절한 전략, 정책 및 도구들을 강구한다.
- 위에 언급한 맥락에서 정책입안, 시행 및 평가를 위한 실제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구성한다.
-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집행 지향적인(action-oriented) 연구와 훈련을 제공한다.
- 지역간 및 관심 있는 국가의 요청에 의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훈련활동(training activities)을 구상하고 수행한다.
- 범죄학 및 관련학문에 관한 국제서류(문헌) 센터를 유지함으로써 정보의 교환을 도모한다.

3. UNICRI와 다른 유엔 기관들

UNICRI는 유엔의 보조기관이며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the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 이사회가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비엔나에 있는 유엔사무국, 사회발전 및 인도주의사항 센터(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ffairs), 특히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과(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와 긴밀한 자문, 협조, 또 업무관계를 유지한다.

범죄예방 및 가해자처우를 위한 유엔 연구소들 네트워크의 지역간 구성체로서, UNICRI는 지역연구소들과 업무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연구소들로는 유엔 아시아 및 극동 아시아연구소(the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 UNAFEI), 라틴 아메리카연구소(the Latin American Institute : ILANUD), 유엔과 연계되어 있는 헬싱키연구소(the Helsinki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 HEUNI), 그리고 유엔 아프리카연구소(the United Nations African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 UNAFRI) 등이다. 또한 아랍 안보연구 및 훈련센터(the Arab Security Studies and Training Center : ASSTC)와 호주형사정책연구소(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AIC)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UNICRI는 다른 주요 유엔 프로그램과 기관들과도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주요한 것들을 보면,

-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the United Nations Fund for Drug Abuse Control (UNFDAC)
-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the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 the Center for Human Rights
- the Division of Narcotic Drugs
-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등이 있다.

이 연구소는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유엔 범죄예방 및 가해자처우에 관한 회의의 준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이 회의의 연구 분야를 조직한다는 측면과 또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과의 요청 및 협조 하에 각종 서류 및 문건들을 제작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직접적인 관여의 폭이 확대되어 왔다.

4. 기타 기관들과의 협조

UNICRI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4개 주요 국제 비정부 조직들과도 협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the International Penal and Penitentiary Foundation(IPP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riminology(ISC),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ocial Defense(ISSD) 및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nal Law(IAPL)이다. 이외에도 the Council of Europe, the Centro Nazionale di Prevenzione e Difesa Sociale(Italy),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lcohol Addiction(ICA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Judges(IAJ), 그리고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 등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많은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과도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5. UNICRI의 활동

이 UNICRI의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즉 연구 활동, 기술적 협조, 훈련, 자료 서비스 및 발간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이 연구소의 기본업무의 이행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 연구 활동

UNICRI의 집행지향적인 연구 패러다임들은 지난 20여년 간에 걸쳐 발전되어 온 것이며 몇몇 기본적인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

프로젝트들은 연구사항의 사회문화적 위치 및 의의를 고려하여 특정 사회체제내의 지역사회, 정책입안가 및 실무자들에게 당면하는 문제들과의 관련 하에 규정되며 디자인된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의 시작에서부터 연구결과 및 프로그램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걸쳐 연구자, 정책입안가, 실무자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활용하게 되는 포괄적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도는 비판적 분석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지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어떤 연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기도 하지만, 지역간의 차원에서 국제비교접근에 많은 역점이 주어지며 이보다는 덜하지만 지역연구에도 역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비교연구에 특히 초점을 둔 방법론의 개발에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게 된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많은 준비가 이루어진 근래의 주요 관심분야를 보면,

- Crime and Development
- Sentencing Policy and Practice, with emphasis on alternatives to imprisonment
- Environmental Crime
- Drug Abuse and Control 등이 있다.

2) 기술협력

기술협력 분야에서의 UNICRI의 활동은 개발도상국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각 개별 개발도상국들의 문제에 따른 수요에 대응한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능력을 포함하여 연구기관들의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각 국가가 자급자족(national self-reliance)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UNICRI는 이러한 분야에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을 위한 유엔 지역간 고문(the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Adviser for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과도 협조하고 있다.

업무프로그램의 이러한 운용에 관한 요소들은, 연구결과들을 현장수준에까지 확대하고 이로써 얻어지는 정보 및 경험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개념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여러 자료 중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협조라는 관점에서 다른 측면을 지

원하여, 이 연구소의 핵심적 연구 활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태리정부와 기타 수혜국들의 재정지원하에 진행된 3개의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Social Rehabili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t EI-Katta Prison Farm in Egypt
- Street Children : Pilot Project in Argentina and Uruguay
- Social Change and Criminality in Tunisia : Research and Training

3) 훈련(교육)

개발도상국 직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연구소 훈련은 모든 연구 및 기술협력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외에도 연구소는, 범죄학 분야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연구자와 정책분석가들의 방법론적 지식과 기술을 새롭게 해 줄 목적으로 최근에 범죄학 연구 방법론에 관한 훈련과정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도 있다.

개발도상국 직원들을 위한 형사사법의 시행 및 인권문제 등에 관한 훈련과정들은 이 연구소의 훈련활동의 또 다른 측면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 연구소는 피교육자들이 선정되는 국가 및 지역들의 사회 및 범죄학적 상황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됨으로써 이러한 훈련활동들은 연구소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수요 및 우선순위의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4) 도서 및 문헌 서비스

UNICRI의 도서 및 문헌 서비스는 범죄학 및 형법분야의 주목할 만한 문헌 센터를 구성하게 되며, 이의 주요 목적은 연구소의 연구 프로그램에 효율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도서실의 구입정책은 범죄학에서 요구되는 학제 간 접근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장서의 핵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로 형법 및 범죄학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적여건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회과학 방법론 보고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서실은,

- 약 11,000 monographs(hardback과 microfiche)
- 약 350여 정기간행물(전문저널, 몇몇 주요 도서관의 구입 리스트, 참고서 및 80여 통계연감들)
- 유엔기관 및 유럽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로부터의 약 20,000 서류들
- 5,000여 초록, 팜플렛과 사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렇듯 상당히 전문화된 정보서비스의 도서 카탈로그는 완전 자동화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태리 대법원의 전자 문헌센터와도 연결이 되어 가능한 한 광범위한 층에 가용하도록 하고 있다.

5) 발간활동

모든 연구(그리고 일부 기술지원 및 훈련관계) 프로젝트는 발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며, 연구소의 주요 과학적 산물의 최대한의 광범위한 배포를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아랍제국,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를 각각 커버하는 간행물들로 구성된 "개발도상국의 범죄학(Criminology in the Developing World)"이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고

또 논문(articles)이나 정기 소식지(regular newsletters)들을 사회학과 범죄학에 관련된 몇몇 국제정기간행물에 기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모든 활동이 책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정부나 다른 유엔 기관에 보내는 보고서와 같이 발간이 안 되는 보고서(unpublished reports)들도 있다.

6. 재정 및 관리

UNICRI의 행정예산 및 과학 활동을 회원국, 비정부기관 및 학문적 연구소들에 의해 기부되는 유엔 사회방위기금(United Nations Social Defence Trust Fund)에 의해 지원된다. UNICRI는 또한 비슷한 류의 기부(예컨대 스텝의 파견 등)도 받고 있으며 특히 이태리 정부의 도움으로 상당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완전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금들도 각 정부나 국제 지원기관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현장차원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해당 정부로부터 받기도 한다. 연구소의 활동을 위한 원칙, 정책 및 지침들과 업무 프로그램의 심의 및 의결은 이사회의 책임사항으로 되어 있다.

7. 이사회

그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사회는 유엔과의 중요한 연결을 나타내며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취해지는 협조된 접근양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7명은 유엔의장의 지명과 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자격과 전문성을 지닌 저명한 인사들 중에서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에 의해 선정된다. 유엔의장, 유엔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관리자, 그리고 주인국가(host country)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들이 UNICRI소장과 함께 직권에 의한 이사를 구성하게 된다.

8. 스텝

UNICRI의 스텝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관리/행정, 연구, 그리고 지원스텝이 그것이다. 핵심적인 과학적 활동의 스텝은 필요시 회원국 정부로부터의 연구자의 파견을 통해 보강되어, 스텝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구성되며 특정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임용은 문화 및 사법적 배경을 가 능한 한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과학적인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독일 Max-Planck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원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I. 연혁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본래 Freiburg대학의 비교형법학 세미나에서 시작하여 후에 연구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통적으로 비교법학을 법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발전시켜 온 독일에서 비교법연구를 계획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터였다. 전쟁중이었던 1916년 Munchen대학에 비교법 연구소(Institut für Rechtsvergleichung)가 설립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카이저-빌헬름 재단(Kaiser - Wilhelm Gesellschaft) - 후에 막스플랑크 재단으로 개명(Max-Planck-Gesellschaft) - 이 비교법연구를 중점지원 사업으로 하면서 1924년 베를린에 외국공법 및 국제법연구소(Kaiser-Wilhelm-Institu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를, 그리고 1926년에는 역시 베를린에 외국 및 국제사법연구소(Kaiser-Wilhelm-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를 설립하였고, 비교형법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다시 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독일제국 법무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1. Freiburg대학의 비교형법학

1938년 Freiburg대학 법·국가학부의 형법교수로 초빙된 Adolf Schonke교수의 제안으로 Baden주 문교부의 허가에 의하여 1938년 10월 31일 "Freiburh대학 외국 및 국제형법 세미나"가 개설되었다. 그렇지만 "외국 및 국제형법 세미나"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초창기에는 별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기간 동안 A. Schonke교수는 그 "세미나"의 장서수준을 처음 1,200권에서 전쟁이 끝날 때에는 5,000여 권까지 확장시키는 등 "세미나"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47년에는 지금까지의 "세미나"를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로 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기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도서실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였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소원해진 외국과의 학문적 유대관계를 증대시키고 학문적 연구 인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었다.

1953년 A. Schonke교수가 사망한 후 1954년 4월 1일 Hans-Heinrich Jescheck교수가 그 후임자로 초빙되었고 같은 해에 Jescheck교수는 Schonke교수가 준비하였던 "연구소 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연방 법무부 장관인 Walter Strauß에 의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소는 독일 Baden-Wurtemberg주 Freiburg대학의 공법인체로 발전하여 1954년 6월 14일자로 공식적으로 "법인"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연구진도 1명의 연구원에서 7명의 연구원으로, 그리고 다수의 연구보조원과 연구장학생들, 몇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들로 확대 구성하였다.

2. 막스-플랑크 연구원으로

이 연구소는 1966년 막스플랑크 재단(Max-Planck Gesellschaft)으로 편입되면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소의 위상변경은 특히 당시 그곳의 소장이었던 Adolf Butenandt교수와 법무부장관 Strauß박사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당시의 연구소 소장이었던 H.-H. Jescheck교수가 새로운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위원 겸 소장으로 선임되었고, 당시 Freiburg대학부설 범죄학 및 행형학연구소(Universitätsinstitut für Kriminologie und Strafvollzugskunde in Freiburg)의 소장이었던 Thomas Wurtenberger교수와 Gießen대학의 Theo Vogler교수가 외부 연구위원으로 초빙되었다.

3. 범죄학 분과의 창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형법분야, 특히 비교형법 연구에 중점을 두었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형법학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총체적 형법학(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으로 발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범죄 및 형법 연구 분야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70년 "형법 연구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를 연구소 내에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실증연구와 비교법연구의 조직적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범죄학 연구 분과를 창설하였다. 당시 Tubingen대학의 범죄학 연구소에서 활동하였던 Gunther Kaiser박사가 새로운 범죄학 연구 분과의 책임자로 초빙되었다.

그 후 1973년 Kaiser박사가 Jescheck소장과 함께 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명실상부하게 형법학과 범죄학의 쌍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연구 인력의 약40%정도, 도서관자료의 40%정도가 범죄학 분야에 배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연구재정에 있어서는 실증연구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범죄학 분과에서 전체 연구재정의 약60%를 이용하고 있다. 범죄학 연구 분과는 일차적으로 막스플랑크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지만, 그 밖에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독일 학술 진흥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4. 연구소 건물의 신축, 이전

1978년 건축미와 고도의 합목적성을 조화시킨 새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보다 안락하고 효율성 있는 연구의 추진을 도모하였다.

5. 공동소장제

1982년 Tubingen대학 교수인 Albin Eser박사가 Freiburg대학 Jescheck교수의 후임으로, 그리고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위원 겸 소장으로 선임되었다. 1983년 Jescheck교수의 퇴임 이후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현재까지 A.Eser교수와 G.Kaiser교수의 양두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II. 연구분야의 조직과 활동

1. 두개의 연구분과의 결합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독일과 외국의 형법, 국제형법 및 범죄학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일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연구에 치중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활동(예를 들어 연방법무부의 위탁연구)도 수행함으로써 실무상의 정책실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활동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적이면서 또한 의존적인 두 분야(형법학과 범죄학)를 상호 독립적인 가운데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다 인도적이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형법 및 그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총체적 형법학(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형법학이 범죄문제의 규범적 측면이라면, 범죄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는 경험과학으로서 양 분야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내에서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형법학 분과에서는 일차적으로 독일 및 외국의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을 포괄하여 그것을 역사적 분석, 사회적 요청, 판례의 동향 등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각국의 당면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검토하며, 현행법의 개혁과 관련하여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형법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고자 함이 형법학 분과의 연구목적이다. 현재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형법학 분과는 Albin Eser교수의 지도하에 외국 각국의 언어 및 법질서에 정통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학분과의 연구원은 현재 14명이며, 20여명의 연구보조인력이 연구원을 보조하고 있고 그 밖에 Freiburg대학의 박사학위논문 준비자들 일부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준비 및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상호보완하고 있다.

한편 범죄학 분과에서는 범죄행위의 실태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식통계에 나타난 범죄 뿐만 아니라 소위 "범죄암수(Dunkelfeld)"를 측정하고 범죄와 형벌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범죄학 연구분과는 경찰, 검찰, 법원, 행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G.Kaiser,교수가 지도를 맡고 있는 범죄학연구분과의 연구진은 따라서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학자 뿐만아니라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이 함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각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범죄학분과는 7명의 연구원을 비롯하여 연구보조원, 독일학술진흥재단의 파견연구원등 약20여명으로 연구진을 이루고 있다. 범죄학 분과 역시 매달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하여 각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간의 상호연관성을 긴밀히 하고 있다.

2. 연구활동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은 크게 형법학 분과와 범죄학 분과로 나뉘어 있으나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은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총체적형법학"이라는 지향점으로 볼때 "형법학과 범죄학의 공동연구"가 가장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분과별로 개별연구를 수행한다.

1) 형법학과 범죄학의 공동연구

연혁적으로 범죄학 연구 분과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비교형법적 연구에 기존의 실증자료를 이용, 분석하는 단계에 불과하였다. 그 대표적인 연구프로젝트가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에 관한 연구 및 재심절차(Wiederaufnahme des Strafverfahrens)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범죄학 연구 분과가 창설된 이후에는 양 분과가 비록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집행하였지만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상호보완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1978~79년에 걸쳐서 범죄학 연구분과에서는 사적인 범죄통제로서 "고용관계에서의 사법(Betriebsjustiz)"을 다루었고 형법학 연구분과에서는 공적인 범죄통제로서 "검찰(Staatsanwaltschaft)"을 소송법적 시각에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상호관련을 맺었던 양 분과의 공동연구체계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즉, 이제는 양 분과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계획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항시 서로 보완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1982년에 시작된 낙태 연구 및 1983년에 시작된 환경범죄 연구가 대표적인 공동연구로 평가된다.

2) 분과별 독자연구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양 분과의 공동연구 이외에도 각 분과별로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또한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주제들을 분과별로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형법학 연구분과

- 벌금형제도 연구
- 자유형연구(특히 무기징역, 부정기형, 단기자유형제도)
-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연구
- 외국의 형법사
- 법과 의학에 관한 연구

○ 범죄학 연구분과

- 범죄통제기관 연구(특히 시민의 신고행위와 관련한 연구)
- 형사제재연구(특히 행형과 재사회화 방법연구)
- 소년사법연구
- 경제범죄연구
- 범죄학의 국제비교연구